

## 고난, 그 안에 드러나는 진리 (애 1장)

### I. 예레미야 애가, 1장

- A.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538년에 기록되었으며, 3차 바벨론 포로 이송 이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그 배경이다. 유대인들은 매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으며 (스 7:3, 5), 이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BC 586년 이후에 기록되었다.
- B. 이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3차 침공 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 그달리야(그다랴)의 집에 머물다가, 후에 미스바로 가다가 병사들에게 잡혀가다가 라마에서 구출되어, 미스바에서 그달리야와 함께 있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 C. 20세기의 기독교 지성으로 불리는 프란시스 쉐퍼는 “예루살렘 성의 죽음” (Death in the City)이라는 책으로 현대 사회를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당시의 예루살렘과 비교하며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정리했다.
1.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 종교가 정신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며, 국가적인 일을 하나님과 결부해서 해석치 않음
  2.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 선지자들이 사회적으로 동의된 메시지만 말함
  3.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뢰함**: 현대의 Post-Christian 세계(기독교가 더 이상 세계를 이끄는 종교가 아니며, 무신론과 세속주의로 대체됨)와 동일한 모습
- D.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서와 비교하면, 예레미야서는 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예레미야 애가는 일어난 심판에 대한 **애곡**을 담고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와 유사한 고난에 대해 노래(시)로 다룬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욥기: 개인의 고난 (애가 + 고소 + 대화)
  2. 예레미야 애가: 국가적 고난 (애가)
  3. 하박국: 국가적 고난 (산문 + 노래)
- E.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위로받을 곳이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다. 이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위로할 재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상태이다. 이는 이사야서 40장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과 상반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도 이와 유사한 감정과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sup>9</sup> ...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 <sup>16</sup>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라 <sup>17</sup> 시온이 두 손을 찢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 <sup>21</sup>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애 1:9, 16-17, 21)

- F. 예레미야는 이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즉, 그는 예루살렘의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지만, 그리고 불평할 이유는 산더미와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실족할 수 있는 이유도 끝없이 댈 수 있지만, 그는 고백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sup>18</sup>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애 1:18)

<sup>20</sup>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애 1:20)

- G. 인생의 어두움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 전부가 하나님 앞에 노출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는 전혀 즐겁지 않고 마른 흙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욘 30:3),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노출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주님 제 안에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고난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이유와 상관없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전혀 의로울 가능성도 없는 우리 자신”을 맞닥뜨리게 된다.**

- H.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해지기 위해 굳이 심각한 고난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다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아무런 의가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도록, 걸어가시도록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드리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